



국토교통부

보도 설명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3. 3. 5.(일)		
담당 부서	공항정책관	책임자	과 장 강성습(044-201-4328)
	공항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고상룡(044-201-4337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영종·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,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.

< 보도 내용 (중앙일보, 3.5) >

◆ “민자통행료 인하 새 방안 찾았다더니... ”文정부 방식과 똑같다”

영종·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공기업에 선투자시키는 방식으로 동일하며,
선투자 비용도 3조원 넘게 필요하여 공공기관 부담이 여전

- 국토교통부는 지난 2.28일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 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·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- 先투자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,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영종·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.
- 최근 금리·물가 등 경제여건, 공공기관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종대교는 ‘23.10.1일부터, 인천대교는 ‘25년말부터 단계적으로 인하시기를 재조정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.
- 통행료 인하에 따른 先투자 비용(차액보전금*)을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 공항공사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재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또한,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완료('24년말)되고, 국제선 항공수요 정상화로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투자 여건도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 차액보전금을 일시에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며, 민간사업자의 잔여 관리 운영기간 (영종대교 약 7년, 인천대교 약 14년)동안 매년 이를 나눠서 부담

□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의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의 협상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, 관계기관 협의체(정부, 공공기관 등)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.